

# '89년 국제석유시장 동향개관

## 오일 달러의 부활

자유세계의 석유소비는 지난 수년 순조로운 증가추세가 계속되었다. '89년 소비는 전년비 2%, 100만b/d 증가하였으며, '86년 3.2%, '87년 2.3% '88년 3.2%로 상당히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이는 예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그 주요인은 太平洋지역을 중심으로하는 개발도상국의 순조로운 경제성장에 기인되고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가 작성한 1989년 자유세계의 석유수급(表-1)에 의하면, 석유소비는 '88년의 5,090만 b/d 에서 '89년엔 5,190만b/d로 100만b/d(2%) 증가했으나, 선진국의 증가는 40만b/d(1.1%)에 불과하다. 開發國의 증가분이 60만b/d, 4.3%에 달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北美과 유럽은 지난 겨울에 한파나 갈수로 인해 석유수요가 급증했으나, 작년초의 수요감소로 상쇄되어 年間을 통해서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캐나다에서는 증가했으나, 美國에서는 약간 감소하였다. 유럽도 '89년 1/4분기는 暖冬이었다.

太平洋지역에서는 30만b/d(5.5%) 증가했는데, 이는 대부분 日本에 의한 것이다. 開發國은 60만b/d 증가분 중에 아시아 각국이 50만b/d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에도 60만b/d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급면에서는 OECD제국이 전년비 60만b/d 감소하여 1,600만b/d가 되고 共產圈으로부터의 순수출도 10만b/d 감소, 210만b/d가 되었다. 開發國으로부터의 공급이 30만b/d 증가하여 960만b/d가 되었으며, 非OPEC 전체의 공급은 전년비 40만b/d 감소한 2,880

만b/d이다. 한편 OPEC원유의 공급은 전년의 1,970만

〈表-1〉自由世界の 석유수급

(단위: 100만b/d)

	1989	1988	89 / 88
消 費			
O E C D			
北 美	19.1	19.1	100.0
歐 洲	12.5	12.4	100.8
太平洋지역	5.8	5.5	105.5
計	37.4	37.0	101.1
非O E C D	14.5	13.9	104.3
消 費 計	51.9	50.9	102.0
供 給			
O E C D	16.0	16.6	96.4
開發途上國	9.6	9.3	103.2
共產圈純輸出	2.1	2.2	95.5
프로세싱계인	1.1	1.1	100.0
非OPEC計	28.8	29.2	98.6
O P E C			
原 油	21.7	19.7	110.2
N G L	1.9	1.8	105.6
OPEC計	23.6	21.6	109.3
供 給 計	52.4	50.8	103.1
在 庫 變 動 額			
민 간 재 고	0.1	△ 0.2	-
정 부 재 고	0.1	0.1	100.0
기 타 재 고 등	0.3	0.0	-
재고변화등계	0.5	△ 0.1	-

〈자료〉 IEA

〈表-2〉 世界の 原油生産量 (1989)

(단위 : 1,000b/d, 전년비 : %)

	생산쿼터		1989/1	2	3	4	5	6	7	8	9	10	11	12	1989년 平均	전년비
	前期	後期														
사우디아라비아	4,524	4,891	4,800	4,550	4,400	4,800	4,900	4,700	4,800	4,900	5,100	5,200	5,600	5,600	4,946	△ 1.4
이란	2,640	2,854	2,800	2,850	3,200	2,900	2,500	2,800	2,800	4,000	2,850	2,950	2,800	2,900	2,863	28.2
이라크	2,640	2,854	2,650	2,650	2,650	2,750	2,750	2,700	2,850	3,000	2,900	3,000	2,950	3,000	2,821	8.0
쿠웨이트	1,037	1,121	1,050	1,150	1,200	1,500	1,800	1,900	1,700	1,700	1,700	1,700	1,900	1,900	1,600	27.6
아랍에미리트	988	1,067	1,635	1,550	1,575	1,605	1,605	1,875	1,865	1,905	2,100	2,200	2,300	2,350	1,880	21.8
아부다비			1,200	1,135	1,160	1,190	1,190	1,450	1,450	1,490	1,685	1,865	1,885	1,935	1,470	28.1
두바이			430	410	410	410	410	420	410	410	410	330	410	410	406	3.6
샤르자			5	5	5	5	5	5	5	5	5	5	5	5	5	
카타르	312	338	400	420	340	330	410	420	400	400	400	400	380	395	391	24.4
중立地帶			400	400	380	390	410	410	410	410	410	410	390	380	400	26.8
페르시아灣산유국합	12,141	13,125	13,735	13,570	13,745	14,275	14,375	14,805	14,825	15,315	15,640	15,860	16,320	16,525	14,901	12.5
베네수엘라	1,636	1,768	1,650	1,650	1,650	1,650	1,650	1,700	1,700	1,750	1,750	1,800	1,800	1,800	1,713	2.2
다이지리아	1,355	1,464	1,400	1,400	1,550	1,600	1,600	1,700	1,800	1,700	1,700	1,600	1,800	1,800	1,638	18.0
인도네시아	1,240	1,34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50	1,200	1,250	1,250	1,250	1,217	5.0
리비아	1,037	1,121	1,050	1,050	1,05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150	1,150	1,096	7.8
알제리	695	752	690	690	690	690	690	690	700	700	700	700	700	700	695	8.6
가봉	166	179	175	175	180	200	210	210	210	230	230	280	280	260	220	25.7
에콰도르	230	248	310	280	280	280	250	280	280	300	300	300	290	290	287	△ 7.3



b/d에서 2,170만b/d로, 200만b/d(10.2%)나 대폭 증가하였다.

공급합계에서는 5,240만b/d로 전년보다 160만b/d 증가하여 소비증가분 100만b/d를 60만b/d 상회하였다. 그 결과 재고가 전년의 감소분 10만b/d를 보전하고도 50만b/d 증가하였다.

'89년의 자유세계 수요를 보면, 수요가 증가한 것은 아시아·太平洋지역이고 美國은 한파, 유럽은 갈수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했으나, 그 후는 둔화되고 있다. 開途國도 아시아太平洋지역 이외는 증가세가 저조하다. 이에 따라 OPEC로서는 오히려 공급과잉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유가가 강세를 유지한 것은 성수기에 이상기상에 휩쓸리거나 대사가 발생하거나 해서 시장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급의 실태 이상으로 시장연동가격제가 잘 작용했던 것이다.

'89년의 세계주요산유국의 원유생산상황은 <表-2>와 같다. 우선 OPEC는 1월의 2,021만b/d에서 12월의 2,377만 5,000b/d로, 356만 5,000b/d(17.6%)나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중 페르시아灣 산유국이 1,373만 5,000b/d에서 1,652만 5,000b/d로 20.3% 증가하고 있다. OPEC 생산 증가분의 78.3%가 페르시아灣 각국에 의해 점유되고 非페르시아灣 산유국은 647만5,000b/d에서 725만b/d로 1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생산증가가 현저한 국가는 이란, 쿠웨이트, 아부다비, 카타르 등으로서 모두 30% 가까운 증산이다. 10월 이후는 국별 생산쿼터가 없어진 셈인데, 각국이 생산쿼터를 준수했던 달이 적다. 非페르시아灣산유국도 나이지리아, 가봉, 에콰도르는 증산하고 있다. 증산의 이유로서 이란, 쿠웨이트, 아부다비는 日本 등 아시아太平洋지역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이라크는 美國의 생산감소를 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非OPEC산유국에서는 美國이 연간평균으로 전년의 813만4,000b/d에서 761만5,000b/d로 51만9,000b/d(6.3%) 감소하였다. 北海는 전년에도 사고로 인해 2.5% 감산했는데 '89년에도 사고가 발생, 연속사고가 누적되어 약 6%의 감산을 보였던 것이다. 멕시코는 전년과 동일수준의 생산을 유지했으며, 오만은 연간평균 4만 3,000b/d 증산하였다.

소련은 연간평균 1,214만6,000b/d로, 1,200만b/d 수준을 유지했으나, 연초 1월의 1,244만b/d에서 10월에

는 1,194만b/d, 12월에는 1,170만b/d로 감소하여 연간으로는 6% 저하하였다. 東歐圈은 36만7,000b/d로 소폭 감산했고, 中國은 275만b/d로 전년수준의 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89년의 세계 원유생산량은 6,415만4,000b/d로 전년비 2.5% 증가하였다. 그중 OPEC의 점유율은 자유세계에 대해서는 44.5%, 세계전체에 대해서는 33.9%로 전년의 동 42.0% 및 31.5%보다 각각 2.5% 및 2.4% 상승하였다.

이러한 원유증산과 가격의 강세로 '89년의 OPEC 石油收入은 전년비 40% 증가한 1,070억달러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증산폭이 컸던 이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50% 이상 收入이 증가하였다. 사우디의 '89년 石油收入은 232억달러로 전년비 23% 증가하여 '84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런던의 금융시장에서 수년만에 日本의 국채를 구입할 움직임을 보여 산유국에 다시 오일 달러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관계자들의 화제가 되고 있다.

## 원유가격 GSP를 들따

'89년은 연간을 통해 유가가 강세를 유지하고 봄과 연말에는 급등했는데, 그 중요 원인이 유전사고였던 것이 특색이다.

<表-3>은 '89년 주요산유국의 對日本 D-D(직접판매) 원유가격의 추이이다. 아래쪽에 있는 「Platt's 平均·두바이·오만」란을 보면, 對日本販賣 중동원유가격은 두바이원유와 오만원유의 시장가격에 일정한 계산방식으로 연동하는 「시장연동가격제」로 되어 있다. 두바이와 오만의 가격은 美國의 石油專門紙 Platt's紙에 기재되는 평균시황이 채택된다. 그것은 또한 뉴욕石油先物去來所의 WTI 원유가격에 연동해서 변동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의 원유시황이 상승하면 日本에 수입되는 원유가격도 연동해서 상승한다.

두바이도 오만도 3월 및 4월에 종전까지 배럴당14~15달러였던 것이 17달러 정도로 급등하였다. 두바이는 2월의 배럴당14.61달러에서 3월에는 16달러로 1.40달러 상승하고 4월엔 배럴당16.93달러로 약 1달러 상승, 2개월간에 약 2.4달러 급등하였다. 오만도 2월의 배럴당15.01달러에서 3월엔 16.44달러로 1.43달러 상승하고 4월엔



배럴당 17.39달러가 되어 2개월간에 약 2.4달러나 오른 셈이다.

이것은 모두 유전사고의 영향 때문이다. 3월23일 심야에 알라스카의 노드슬로프 原油를 출하하는 발데즈항 근처의 프린스 윌리엄해협에서 美國 엑슨社의 대형탱커 엑슨 발데즈호가 좌초하여 38,000kl의 원유를 유출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발데즈항이 폐쇄되고 알라스카원유는 200만b/d의 수송능력이 80만b/d로 저하하였다. 그후 서서히 회복되었으나, 4월분은 20%정도 감소되어, 캘리포니아 등 美國서해안에서는 원유공급이 부족, 멕시코만 및 中南美 원유에의 의존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또한 4월18일에는 英國領 北海 코모란드 원유의 알파 플랫폼이 가.배출로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이 플랫폼은 주변 10유전의 집유·수송기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 47만b/d의 생산이 중단되었다. 북해유전에서는, '88년 7월의 파이프유전, '89년 1월의 브랜트油田 등 사고가 잇달아, 총 60만b/d의 생산이 중단되고 있었다. 거기에 이 사고로 합계 110만b/d 가까운 생산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들이 유가를 급등시켰다. 뉴욕 시장의 WTI原油는 3월1일에 배럴당18.28달러이었으나, 3월말에는 21.25달러로 3달러나 상승하여 '87년 8월이래 1년8개월만에 21달러수준의 高價를 기록했다. 또한 북해사고후인 4월20일에는 WTI가격이 배럴당 25.30달러로 뛰어 올랐다.

다른原油도 마찬가지로, 3월초부터 4월20일까지의 50일간에 北海原油의 대표유종인 브랜트油가 배럴당16.60달러에서 20.20달러로, 中東原油의 대표유종인 두바이油도 배럴당14.80달러에서 17.45달러로 급등하였다. 이른바, 미니 오일 쇼크라고 해도 좋은 상황이어서 日本의 신문에도 「美에너지部, 日本通産省, IEA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油價를 낮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실이 게재될 정도였다.

그후 유가는 서서히 하락세를 보여, 두바이원유도 8월에는 배럴당 14.99달러로 15달러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가을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서 12월에는 다시 급등하였다. 두바이원유는 11월의 배럴당16.10달러에서 12월에는 배럴당17.11달러로 급등하고 지난 1월에는 다시 배럴당17.44달러로 상승, 2개월동안에 배럴당1.34달러(8.3%)이나 상승했던 것이다. 2월에 들어 16달러수준으로 하락

했으나, 지난 연말연시의 급등을 초래한 것이 이상기상과 사고였던 것은 상당히 특징적이라 하겠다.

'89년 12월초부터 美國의 동부, 중서부 지역이 14년만의 한파에 휩쓸렸다. 이 한파는 美國의 석유수요를 100만b/d 증가시킴으로써 난방유가격이 급등하였다.

뉴욕의 난방유가격은 12월초까지는 갤론당 60센트 정도였으나, 중순에는 75센트가 되고 美軍이 파나마에 개입한 다음 날인 21일엔 79.81센트가 되었으며, 26일에는 92.48센트로 뛰어올랐다.

그 원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엑슨의 메이튼루주정유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인은 한파로 인해 파이프라인에 균열이 생겨, 탱크 8기에 인화되어 15시간이나 연소하는 대화재가 된 것이다. 이 사고 때문에, 텍사스주, 루이지애나주 등 각 정유공장이 파이프라인의 점검을 위해 조업을 단축, 그 영향은 합계 정제능력 233b/d에 미쳤다. 뉴욕의 난방유가격은 1갤론 1.05달러로 작년 가을의 2배로 폭등하였다. WTI의 가격은 12월초의 배럴당20.30달러 전후에서 1월4일에는 배럴당23.87달러로, 작년 4월의 알라스카 원유유출 사고이래 고가격을 기록했다.

中東原油 스파트시장의 두바이 가격은 작년 11월말의 배럴당15.80달러에서 지난 1월4일에는 배럴당19.10달러로 상승하였다. 아라비안라이트의 對日D-D가격은 작년 11월의 배럴당16.56달러에서 12월에는 17.58달러로 1달러 이상 오르고, 1월에는 다소 상승해서 배럴당17.90달러가 되어, 정부공식판매가격(GSP)인 배럴당17.52달러를 돌파했던 것이다.

## 소비국의 설비투자

지난해부터 올해초에 걸친 국제석유시장의 상황을 보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고나 한파, 갈수 등의 이상기상이 제품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즉시 원유가격이 급등락한다는 것이다. 작년 봄의 원유가격급등은 알라스카 및 北海의 사고 연속때문이고, 연말부터 연초에 걸친 원유가격의 급등, 급락도 美國의 한파에 정유공장화재가 겹친 것이 원인이다. 특히 美國의 사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美國은 정유공장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BP통계에 의하면, 美國의 석유소비는 1983년의 1,475만b/d에서

'88년엔 1,642만b/d로 11.3% 증가하였다. 한편 정제능력은 이동한 1,587만b/d가 1,592만b/d로 뺏을 뿐,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정제능력은 국내소비량을 하회하고 있으며, 제품수입을 하고 있는데도 정유공장 가동률은 90% 가까이에 이르러, 세계적으로도 최고에 가깝다.

美國의 정유공장이 이처럼 풀가동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품수급이 조금이라도 변동하면 시황이 크게 반응한다. 뉴욕에 거대한 석유선물거래소가 있어서 원유만 1억b/d라는 자유세계 수요의 2배나 되는 물량이 거래되고 있다. 그곳에는 세계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어, 투기거래가 성행되고 있다. 이른바 「Wall Street Refinery」가 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수급에 영향을 미칠것 같은 정보가 있기만 하면 실태는 어쨌든, 투기거래의 재료가 되어 시세를 난무시킨다. 한파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난방유가격이 급등한다. 메이저의 탱커가 제품을 싣고 유럽을 출항했다는 소문이 나들면 시황은 즉시 급락한다.

美國의 정제능력부족은 연쇄적으로 투기의 재료가 되는 경향도 있다. 지난해 봄에는, 여름에 휘발유의 증기압규제가 강화되어 부탄의 혼입을 못하게 되는데도 휘발유생산설비의 가동률은 90%에 달하고 있으므로 휘발유가 부족할 것이라는 정보가 퍼졌다. 그러자 뉴욕의 휘발유시황은 3월초의 1갤런당 약 50센트에서 4월20일에는 75센트로 50%나 급등하였다. 이것이 알라스카, 北海의 연속사고와 맞물려 원유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름에 휘발유부족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가을이 되자, 여름에 휘발유 증산에 치중함으로써 난방유 생산이 충분치 않아 비축이 적다는 정보가 유포되어 난방유 상승에 한몫을 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美國의 기온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되자 난방유 생산으로 휘발유가 부족하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게 되었다. 지난 1월에 美國의 휘발유재고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 가까이 저수준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봄철에는 휘발유 재고수준이 가격에 영향을 주어, 휘발유 시황이 등락을 거듭하면, 원유가격도 등락을 나타낼 것이다. 게다가 美國의 정유공장에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원유가격은 급등할지도 모른다.

「Wall Street Refinery」라고 일컬어지는 트레이더, 상품투자회사, 증권회사, 금융기관, 석유기업, 수요가,

개인투기가 등 많은 관계자가 다양한 정보를 조작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유 및 제품시세가 형성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유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시세가 변동하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 작년 가을 사우디의 나제르석유장관은 런던에서의 강연에서 「석유산업의 하드웨어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정이 바람직한 유가를 동요시킴으로써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OPEC도 작년 봄의 원유가격 배럴당 18달러 체제를 재건시, 뉴욕에서 유리한 정보를 흘려 가격상승을 부채질했던 것이다.

최근의 석유시장에서는 정보에 의해 유가가 형성되는 시스템이 활발히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가 실태이상으로 석유시세의 변동을 증폭시켜, 가격불안정을 야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美國의 석유정제능력 부족에 있으므로, 석유산업측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 하겠다. 적절한 설비능력 증강을 게을리하여 풀가동상태를 방치해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최근, 前사우디石油장관 야마니는 OPEC에 적절한 생산력 증강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원유가격이 급등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비국측도 적절한 정제능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 미미한 수급변동요인이라도 거래소에서 증폭되어, 유가를 급락시키게 된다.

특히 美國은 자유세계 석유수요의 30%를 차지하는 대시장이다. 그곳에서 제품공급능력이 부족하면, 세계의 석유시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게다가 엑스와 같은 대표적인 대기업이 잇달아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문제이다.

지난 1년여의 석유시장을 개관하면, 유가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OPEC보다도 오히려 소비국 석유산업의 설비부족이나 사고이다. 석유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유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산유국의 능력증강과 더불어, 소비국도 생산설비에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순간 석유정책>

